

#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4년 4월중)

4.2	<p>▶ 강진군 마량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국·도비 70억 확보</p> <p>○ 강진군은 202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1988년 준공해 운영중인 노후 농공단지인 마량농공단지에 국·도비 7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마량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개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이 있다.</p>
4.3	<p>▶ 전남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 '전남형 만원주택' 가시화</p> <p>○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군에는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21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p>
4.3	<p>▶ 영암군, 미래농업 이끌 청년창업농 70명 선발</p> <p>○ 영암군이 '2024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70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 창업농에 선정된 이들은,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농기계 구입과 축사 신축 등에 쓰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간 매월 110만원이, 정책자금은 5억원이 각각 최대치다. 정책자금은 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p>
4.3	<p>▶ 해남군 물김 위판액 1,000억원 돌파 "역대 최대"</p> <p>○ 해남군 2024년산 물김위판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금액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1,0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산 물김 전체 위판액인 722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판종료일인 4월말까지 1,200억원 가량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김 위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마른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김 재고물량이 감소되어 원재료인 물김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p>
4.8	<p>▶ 진도군,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376명</p> <p>○ 진도군이 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은 2022년 371명에서 1.3% 증가한 376명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소득 어업인의 증가요인을 양식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어업활동 지원 등으로 꼽았다. 김의 경우 지난해 조수입 1,153억원, 전복은 1,254억원을 기록해 양식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앞장 선 일등공신이다.</p>

4.15	<p>▶ 장흥군, '청년인구 유입' 위해 서울시와 창업 지원 협업</p> <p>○ 장흥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지역 연계형 창업지원 사업인 '넥스트로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대상 성장돕기(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p>
4.17	<p>▶ 전남도,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천 254억</p> <p>○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19만 7천명, 어업인 1만 2천명 등 20만 9천명이고, 지급규모는 1천 254억원이다.</p>
4.26	<p>▶ 무안~제주 정기 노선 4년 만에 재취항</p> <p>○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전면 운영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제주노선이 4년만에 재취항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정기노선 유치에 항공사 재정손실금을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목표로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4월 서남권 6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전남도와 인근 시군, 항공사가 협력한 결과물이다.</p>
4.29	<p>▶ 영암군, 농림축산식품부와 402억 규모 농촌협약 체결</p> <p>○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총사업비 402억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지역 정책 효율성 제고, 농촌지역 투자유인 등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사업관리를, 영암군은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에 입각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한다.</p>